“다시 태어난 이집트…아픔 함께해준 광주에 감사”

조선대 법학과 박사과정 이집트 유학생 알리 씨

“이집트 국민의 힘으로 부패한 대통령과 정권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감격스럽습니다.”

18일 동안의 반정부 시위 끝에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데 대해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 알리(24)씨는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고 말했다.

알리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이집트 나일 삼각주의 주요도시 중 하나인 민야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조선대에 입학했다. 그는 지난해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조선대 법학과에서 공부중이다.

알리씨에게도 이집트 국민이 반정부 시위를 이어간 지난 18일 동안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비록 몸은 이역만리 타국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무바라크가 물러나길 기원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알리씨는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 2명의 형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집트의 상황을 시시각각 전해들을 수 있었다. 각각 교수와 방송국 직원인 알리씨의 형들은 지난 18일 간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대와 함께했다.

알리씨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집트의 소식을 접했다”며 “무바라크가 사퇴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쁜 마음에 이집트에서 온 친구를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열광했다”고 말했다.

사실 알리씨 역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과연 무바라크가 물러날지 반신반의했다. 무려 30년이 넘도록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의 마을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가 10년 이상 투옥된 사람도 있었기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고 차츰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이 늘면서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번 이집트 혁명의 성공이 SNS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리씨는 “만약 SNS가 없었다면 국민의 대규모 시위 참여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씨는 광주 시민을 포함한 한국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멀리 떨어진 이집트의 상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전달해주고 곳곳에서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 그는 “버스와 택시, 거리 곳곳에서 이집트에 대한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며 “이집트를 지지해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법학도인 알리씨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이집트로 돌아가 변호사가 될 계획이다. 알리씨는 축하를 의미하는 아랍어 “알 함둘릴라”라고 외치며 이집트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순팔 전남대교수 발전기금 1000만원

서순팔 전남대 기획처장이 14일 보직을 이임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복귀하면서 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서 교수가 기탁한 발전기금은 베트남 등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유치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재을·이창재 북구의원 조례평가 장려상

〈고재을〉

〈이창재〉

광주시 북구의회 고재을 의장과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7회 우수 조례평가 결과 개인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 의장은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 위원장은 북구 불법 음란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뤄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최권일기자 cki@

유석진 삼성경제연구소상무 광주 강연

유석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상무가 오는 22일 광주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38차 광주경제포럼 조찬세미나에서 ‘2011년 CEO께 드리는 9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상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 등을 거쳤다. 문의 062-350-5861.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승격 ▲광주인력개발원 교학처장 오태환 ▲〃 행정처장 이상건 ▲전북인력인발원 교학처장 김용복

“명마 본비반트 장흥 馬산업 초석 되길”

3억 경주마 기증 서라벌대 마사과 권승주 학장

“장흥은 타지역보다 말을 육성하는데 기후, 토질 등 환경적인 면에서 최적지입니다. 장흥군이 종마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흥군에 종마 ‘본비반트’(Bon Vivant) 기증을 약속한 서라벌대 마사과 권승주(49·코리아 스탤리온 팜 대표) 학장.

권 학장이 기증한 본비반트(14살)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3억여원에 들여온 국내 유일의 아르헨티나산 씨수말이다.

본비반트는 5살 때 아르헨티나 G1(1600m)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 등 미국에서 경주마로 활약하며 15전 5승(2위 4회, 3위 2회)의 경주 성적을 기록한 마필이다.

지난 2005년부터 교배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62마리의 새끼를 낳아 이 가운데 15마리가 경주마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자마 ‘루비’가 연승 행진을 기록하며 명마의 혈통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권 학장은 “경남 함안과 경북 영천이 지자체로는 최초로 경주마 휴양목장과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경마산업의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며 “장흥이 적극적으로 말 산업 육성에 관심을 보여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고 기증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경마산업 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종마 수출 산업은 앞으로 큰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이다”며 “우리 나라의 경마산업 매출액은 전세계 125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종마 산업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일본에는 15년가량 뒤처져있다. 장흥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학장은 “지방 경마산업은 연간 3000억 가량의 지방세 수입을 보장할 만큼 지역수익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영천에 경마장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호남권이 유력하다.

장흥의 말 산업에 생산, 육성, 훈련, 진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6세 아이도 50대 아줌마도 함께 공부해요”

수완 휴먼시아 ‘무료 공부방’ 인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고실마을 휴먼시아 8단지에는 조금 특별한 공부방이 있다.

방학을 맞아 지난해 12월 중순 문을 연 ‘무료공부방’.

무료공부방에서는 6세의 유치원생부터 50대 후반의 주민까지 한데 어울려 영어와 한자를 함께 배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연지 2달여만에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 30여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박주영(22)씨와 박남규(53)씨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 중 최고령인 최복희(58)씨는 “어려서 배울 기회를 놓쳐 최근에야 방송통신대 법대를 졸업하긴 했으나 영어와 한자를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배움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월성(55)씨는 “올 3월 방송통신대 입학을 앞두고 교양 과목에 있는 한문을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서영주(여·51) 관리소장은 “무료공부방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소통의 매개가 되고 배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봄에는 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美 그룹 레이디 앤티벨럼 그래미상 5관왕

올해의 그래미상에서 5관왕에 오른 그룹 레이디 앤티벨럼의 찰스 캘리, 힐러리 스콧, 데이브 헤이워드(왼쪽부터)

컨트리 그룹 레이디 앤티벨럼이 그래미상 ‘올해의 레코드’ 등 5개 부문을 휩쓸었다. 레이디 가가와 에미넴은 각각 3관왕과 2관왕에 올랐다.

레이디 앤티벨럼은 14일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53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니드 유 나우(Need You Now)’로 주요 부문인 ’올해의 레코드(Record Of The Year)’와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이 그룹은 또 ’컨트리 앨범’상과 ’컨트리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컨트리 노래’상까지 총 5개의 상을 가져갔다.

올해의 레코드 · 노래와 함께 주요 부문인 ’올해의 앨범(Album Of The Year)’상은 캐나다 출신 록 밴드 아케이드 파이어의 ’더 서버브스(The Suberbs)’가 받았다.

최우수 신인상(Best New Artist)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아이돌 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재즈계의 신예 베이시스트이자 여성 보컬인 에스페란자 스팰딩이 받았다. 스팰딩은 그래미에서 신인상을 받은 최초의 재즈 아티스트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이상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홍명옥씨 삼남 민(고려중 교사) 군 윤진구(사업)·고영심씨 장녀 유현(전남대병원 원무과)양=19일(土) 낮 12시 30분 광주 조선 컨벤션웨딩 1층.

▲조옥자씨 차남 최정훈군 주재호·양영심씨 막내 선옥양=19일(토) 낮 12시 30분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김희환(전 농성1동장)·윤한금씨 장남 정욱군 주영식·이봉복씨 장녀 민경양=20일(일) 낮 12시 2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1층(다이아몬드홀)

▲이민전(민전산부인과 원장)·오명숙씨 장남 승헌군 김영일(대영종합조경대표)·김근숙씨 장녀 진영양 신부측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목중고 1513동창 부부모임(문일석)=17일(목) 오후 6시 도청 옆 홍가홍탁식당. 062-2841-1683.

▲동신고 17회(회장 정재근) 2월 정기모임=17일(목) 오후 7시 금호동 화석시대. 010-4604-2958.

▲광주진흥고 2기=17일(목) 오후 5시 월산동 로터리 복식당. 062-369-4573, 010-6780-0157(나성웅)

▲재광 무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림동 맑은 한우. 062-513-9393.

향우회

▲재광 도암향우회 만남의 날=18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 프라자호텔. 010-3628-7468.

종친회

▲장흥위씨 광주종친회(회장 위인백) 정기모임=15일(화) 오후 6시 신성식당(YMCA 뒷편) 062-232-0176, 011-602-9727(총무)

▲동래정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정한영) 신년하례 및 이사회의=22일(화)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011-9615-8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시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제98회 산학협동 포험 및 정기총회=16일(수) 오후 6시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062-226-0011.

▲광주 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 연수회=18일(금) 오후 5시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0962-226-0011.

▲제30차 두암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정맹용)=기념식, 본회의, 한마당 잔치(경품추첨) 19일(토) 오전 10시 광주 동강대학교 본관 5층 대회의실 . 062-263-0136.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부음

▲민운남씨 별세 이경배(조선간호대학)·준배·승배·숙연·숙희씨 모친상=발인 1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공병렬씨 별세 김선중·상중·해중·귀례·귀님·영례·양례씨 모친상=발인 16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현우씨 별세 지연·연정씨 부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최두재·덕재·근재 씨 부친상 노이정 씨 빙부상 발인:2월15일(화) 08시00분 장지:임실호국원연락처:250-4410

▲성주창·주화 씨 부친상 김용식·한인수 씨 빙부상 발인:2월15일(화) 09시00분연락처:250-4409

▲홍석중·명국 씨 부친상 김영주·임동진 씨 빙부상 발인:2월15일(화) 00시00분 연락처: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정순 님(여/98세)
子/子婦 : 이현식 / 강순임, 원식 / 김정자 대희 / 강순자
女/壻 : 이연애, 숙희
• 호실401호 • 발인:2월 15일 • 장지:장흥관산

故 박봉심 님(여/89세)
子/子婦 : 유재갑 / 이기영, 재팔 / 김수진
女/壻 : 유재심 / 김영광, 재엽 / 재순 / 송기출
• 호실402호 • 발인:2월 15일 • 장지:고흥남양선영

故 박경순 님(여/84세)
子/子婦 : 신성균/주순희, 응균/양경숙 종균, 향균/김현정, 애경
• 호실101호 • 발인:2월 16일 • 장지:해남옥천

故 최만례 님(여/81세)
子/子婦 : 이수덕 / 오장숙
女/壻 : 이민순 / 최상규, 상례 / 나정태
• 호실102호 • 발인:2월 15일 • 장지:영락공원

故 이승호 님(남/55세)
未亡人 : 김복희 子 : 이영대 女 : 이민정
• 호실301호 • 발인:2월 15일 • 장지:화순도곡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